

2004 한우산업동향

□ 한우사육현황

(단위: 천두, 천가구, %)

구분	'03				'04			증감		
	3	6	9	12	3	6	9	전분기	전년동기	
총 마리수	1,163	1,236	1,267	1,277	1,315	1,425	1,469	44 (3.1)	202 (15.9)	
가임암소	564	585	594	605	633	670	689	19 (2.8)	95 (16.0)	
연령별	1세미만	373	411	431	427	421	477	495	18 (3.8)	64 (14.8)
	1~2세	274	291	292	297	313	330	338	8 (2.4)	46 (15.8)
	2세이상	516	534	544	553	581	618	636	18 (2.9)	92 (16.9)
규모별	50두 미만	852	891	919	909	936	1,006	1,028	22 (2.2)	109 (11.9)
	50~100	154	179	181	194	193	209	227	18 (8.6)	46 (25.4)
	100두 이상	157	166	167	174	186	210	214	4 (1.9)	47 (28.1)
사육 가구수	184.7	184.2	182.8	182.6	183.1	183.9	183.3	△0.6 (△0.3)	0.5 (0.3)	
규모별	50두 미만	181.5	180.6	179.2	178.7	179.2	179.6	178.8	△0.8 (△0.4)	△0.4 (△0.2)
	50~100	2.3	2.7	2.7	2.9	2.9	3.1	3.3	0.2 (6.5)	0.6 (22.2)
	100두 이상	0.9	0.9	0.9	1.0	1.0	1.2	1.2	0.0 (0.0)	0.3 (33.3)
가구당 두수 (주/호)	6.3	6.7	6.9	7.0	7.2	7.7	8.0	0.3 (3.9)	1.1 (15.9)	

- 전체 한우사육두수 1,469천두로 전분기 대비 44천두(3.1%) 증가
 - 가임 암소 총 689천두로 전년동기 보다 95천두(16.0%)의 증가
- 사육가구수는 183.3천호로 전년동기대비 0.3%증가하여 비슷한 수준
 - 가구당 사육두수 8두로 전년도에 비해 1.1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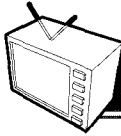
□ 안우도축현황

단위: 두 (%)

년도	거세우	암소	수소	계
'04(9월말 기준)	45,697	88,702	101,871	236,270
'03	57,557	154,197	149,041	360,795
'02	88,206	215,546	142,460	446,212
'01	53,312	289,328	205,539	548,179

□ 9월 등급별 도축두수

등급	거	암	수	계
A1+	548(8.4)	214(2.2)	9(0.1)	771(3.2)
A1	467(7.2)	206(2.1)	95(1.2)	768(3.1)
A2	519(8.0)	324(3.3)	904(11.2)	1,747(7.2)
A3	137(2.1)	113(1.2)	5,654(69.9)	5,904(24.2)
B1+	1,003(15.4)	1,606(16.4)	9(0.1)	2,618(10.7)
B1	1,028(15.8)	1,678(17.1)	55(0.7)	2,761(11.3)
B2	1,154(17.8)	2,019(20.6)	334(4.1)	3,507(14.4)
B3	246(3.8)	626(6.4)	905(11.2)	1,777(7.3)
C1+	451(6.9)	835(8.5)	4(0.0)	1,290(5.3)
C1	423(6.5)	787(8.0)	1(0.0)	1,211(5.0)
C2	436(6.7)	915(9.3)	21(0.3)	1,372(5.6)
C3	78(1.2)	288(2.9)	68(0.8)	434(1.8)
D	11(0.2)	208(2.1)	24(0.3)	243(1.0)
계	6,501(100.0)	9,819(100.0)	8,083(100.0)	24,403(100.0)



한우안테나 NEWS

◎ 축산식품 관리 식약청 이관 저지

“사료값은 계속 오르는 데 소값은 떨어지고 어떻게 더 버틸 수 있습니까?”

축산식품 관리 업무는 현행대로 농림부가 관장,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축산식품 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을 저지하기 위한 축산인들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한우협회장)는 지난 7월14일 긴급 회의를 갖고, 그동안 축산인들이 축산식품 관리업무의 식약청 이관 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축산식품 식약청 이관 저지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축산신문 2004년7월21일자]

◎ “축산물 가공업무 보건부 이관은 부당”…김영덕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 정책건의

축산식품 관리업무에 관한 소관부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덕 의원(한나라·의령 함안 합천) 등 여·야의원 20명은 현재 원료축산물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가 축산식품의 유통까지 일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축산물가공 관련 업무는 1995년 지자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 37개 단체의 관련법 개정요구에 따라 1998년 보건사회부로부터 농림부로 환원됐던 사안이다”며 “가축사육단계와 단절된 유통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검사만으로는 축산식품의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덕 의원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이외에 시장개방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입축산물의 검역과 위생감독을 강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농수축산신문 2004년 7월23일자]



◎ 소 육질 중심 도체등급 적용 현실화

농림부는 지난 92년 6월에 개정된 소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 올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세부기준은 최근 높아진 고급육 출현율 및 높아진 출하체중을 반영하기 위해 근내 지방도를 세분화(7단계에서 9단계로)시켰다. 이에 따라 육질등급 역시 기존 4개(1+,1,2,3)등급에서 5개(1++,1+,1,2,3,)등급으로 1개 등급이 추가됐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육량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존 '육량·육질(예: A1)순에서 육질·육량(예: 1A)' 순의 표기로 변경했다.

[축산신문 2004년 7월27일자]

◎ 5백만원 성금 '화제'

한우 협회의 지역 순회 교육을 통해 한우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시점에 경북 청도에 임명의 한우인이 자조금 대의원 선거의 성공을 위해 한우협 경북도지회(지회장 전영한)에 5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전영한 한우협 경북도지회장은 "한우인들의 열정에 용기가 솟는다"고 말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축산신문 2004년 8월10일자]

◎ 발효사료 급여로 악취 '싸악'

발효사료급여로 생산비절감은 물론 농장악취까지 제거한다.

충북 음성 일월성목장의 김창현대표는 2002년 발효사료 도입 당시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급여 후 농장 악취가 사라지며 소들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한다. 실제로 농장 내에서는 분뇨냄새는 보다 양조장 등에서나 맡을 수 있는 향긋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발효사료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이름이 알려진 일월성 목장은 전국 각지에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축산신문 2004년 8월20일자]

◎ 기획예산처 축산발전기금 폐지 국무회의에 보고·농림부 반발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1일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에서 제출한 현행 57개 기금을 39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발전기금 폐지이유로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재원과 사업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이 낮다는 평가단의 평가에 대해 이는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각종 질병발생 등 유사시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은 존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축산신문 2004년 9월 1일자]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속 시행을...

전국한우협회는 9월1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입법화를 추진 하고 있으나 한국음식업중앙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개정안 상정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음식업중앙회가 제도의 본질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문제라 판단하고, 어렵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가 협회의 이해부족과 일부 음식점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소비자의 불신으로 농가와 음식점 모두 더 큰 손실 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는 축산농가가 제 가격에 소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음식점들의 경기가 촉진되는 긍정적 측면을 홍보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2004년 9월13일자]

◎ 촉발기금 폐지는 축산업 죽이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는 지난 9월10일 촉발기금 폐지 반대를 위한 긴급 모임을 갖고, 촉발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은 '축산업 죽이기'나 다름없다며 축산업의 정당한 가치 평가와 더불어 범축산업계 차원에서 촉발기금 존치를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송석우 축산경제대표이사와 남호경 축단협회장을 선임하고, 소위원회도 함께 구성했다.

[축산신문 2004년 9월13일자]

◎ 쇠고기 불법유통 감시 강화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9월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축산물의 유통 투명화를 위한 단속강화요청 건의문'을 발송하고, 추석시즌을 맞아 불법·편법으로 유통되는 쇠고기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건의문에는 특히 그 동안 판매부진을 면치 못한 수입 생우가 추석 대목을 겨냥해 도축물량을 늘리고 있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의 위험이 있다고 전하고, 이에 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산신문 2004년 9월17일자]

◎ 수입생우 수출국표시 삭제 요구 물의

생우 사육농가와 수입업자가 수입 생우를 길러 생산한 쇠고기의 생우수출국 표시 삭제를 요구, 한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생우 사육농가와 수입업자는 최근 농림부를 잇따라 방문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른 수입 생우를 도축·판매할 때 국내산 육우(예 : 호주 또는 미국)처럼 원산지와 생우 수출국을 함께 표기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출국 표시 없이 국내산 육우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우농가 최삼호씨(45·경북 경주시 버섯한우회장)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들어 한우



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면한 채 수출국 표기를 없애달라는 수입업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법에 따른 표기대로 팔면 되는데 이를 수정해 달라는 요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농민신문 2004년 9월 21일자]

◎ 한우 부루세라병 감염률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듯

농림부는 한우 부루세라병 양성축 출현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우 부루세라 방역정책은 관련단체의 반대가 심한 예방접종보다는 기존의 검진체계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9월17일 소 부루세라병 방역추진회를 통해 한우 부루세라병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평균 농가 양성율이 1.7% 정도라며 더이상은 양성축 출현율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우 부루세라 검사두수가 국내 한우 사육두수의 5.5%에 이른다며 특히 부루세라병 다발지역 위주로 한 만큼 더이상 농가 양성율이 늘지 않을 것으로 이날 회의 참석한 전문가들도 자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한우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으로 예방접종 보다는 검진우 확대, 문진검사 활용화, 검진후 가축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단계적 확대 추진 등이 논의됐다.

[농수축산신문 2004년 9월 22일자]

◎ 음식점 둔갑 판매 처벌규정 없어 논란

수입쇠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아도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대형한우전문음식점에서 젓소, 수입쇠고기를 한우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기도 적절한 처벌규정을 찾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4개 업소 중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사육한 젓소를 한우라고 주장하고 있어 업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한우사육농가는“국내산 쇠고기와 한우가 엄연히 다른데 이들은 구분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한우전문식당을 운영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장난으로 죄를 모면하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같은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강조했다.

[축산신문 2004년 10월12일자]

◎ 핵군육종 연구회 한우송아지 경매 성료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가 주관하고 한우핵군육종연구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논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한우핵군육종연구회 소속 11개 회원농가에서 생산된 96두의 우량 송아지가 경매에나왔다.

이날 경매에 상장된 송아지 96두 중 2두를 제외한 94두가 낙찰됐으며 평균 낙찰 가격은 암송아

지 3백57만원, 수송아지 2백43만원으로 전국 평균 송아지 가격에 비해 10~30%가량 높았다.

이날 경매된 송아지 중 전북 익산소재 이반농장(대표 이근수)에서 출품한 1백85kg을 암송아지가 최고가인 5백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수송아지 중에서는 장성훈씨가 출품한 2백10kg의 수송아지가 3백25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등 3백만원 이상이 4두가 나왔다. 암송아지의 경우 최고가 5백만원을 비롯해 4백만원 이상 고가에 낙찰된 송아지가 8두 있으며 3백만원 이상에 19두가 낙찰됐다.

이번 송아지 경매 행사는 기존의 혈통등록 유무에 의한 송아지 경매와 달리 출품축 개체의 유전능력을 근거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송아지 경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축산신문 2004년 10월13일자]

◎ 능력평가대회 최고 영광 '평창영월정선축협' 차지

제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의 최고 영광은 평창 축협에 안겨졌다. 평창축협은 이번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 국무총리상을 받는데 이어 출품우(도체중 393kg 거세우)가 경매에서 2천1백61만5천원에 낙찰되었다.

전국 92개 농가 및 브랜드 업체에서 모두 160여두가 출품된 가운데 막을 연 이번 대회는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회장 이규석)가 주관으로, 출하된 소의 육질등급과 육량지수를 중심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지난 9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개최해 오던 것을 올 7회 대회부터는 매년 개최기로 하였다.

시상 결과는 종합우승(국무총리상)은 평창축협, 브랜드 최우수는 장수축협 농가 최우수는 김낙도(강원 평창군) 브랜드 우수 음성청결한우(회장 김창현), 괴산축협(조합장 박희수) 농가 우수 변철훈(경기 이천시), 류중원(전남 고흥군)씨가 각각 차지했다.

[축산신문 2004년 10월 20일자]

◎ 소 사육 열기 과열 내년 가격파동 우려

최근 한·육우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년 가격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확대와 제도적인 수급안정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높다.

농관원의 가축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총 사육두수는 166만7000두로 지난해 동기 146만4000두 보다 13.9% 증가했고 지난 2001년 12월 140만6000두 보다는 18.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임 암소 두수는 올 9월 현재 70만5000두로 전년동기 61만1000두 보다 1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번식기반 확대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세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사육두수가 증가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총 사육두수가 200만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칫 또다시 소 값 파동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10월13일 현재 농협중앙회 발표 산지 한우 송아지 가격은 암송아지가 317만4000원, 수송아지 21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각각 345만3000원과 263만1000원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비교적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우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한우자조금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적으로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단속 강화, 생산이력제 조기정착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통해 수입산이 한우로 둔갑되는 것을 완전 차단 해 한우소비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원산지 둔갑판매 차단을 위해 위반 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이하를 10년 이하 100만원이상 1억원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처벌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한우고기 소비확대와 적정 한우가격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여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부정유통을 법적·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2004년 10월 20일자]

◎ “한우산업 비전제시 우리가”

한우자조활동자금 대의원의 힘으로 한우산업의 대안을 제시한다.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병선)는 지난 10월26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시·군지부장 및 자조금 대의원 연석회의’를 갖고, 한우산업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처음 대의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용인시 송운재 대의원은 “한우자조활동자금사업으로 한우산업은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고, 지역의 한우인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하며 대의원에 임하는 의욕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날 김병선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에서 대의원을 100% 선출한 것은 각 시·군 지부장들의 한우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되는 모습으로 한우산업에 우뚝 설 수 있는 경기도가 되자”고 밝혔다.

[축산신문 2004년 10월27일자]